

조지 퍼킨스 마쉬의 『인간과 자연』 : 그 독해의 역사*

1

김기윤
한양대학교 사학과

George Perkins Marsh' s *Man and Nature*: A History of Its Reading

KIM Kiyoon
Department of History
Hanyang University

ABSTRACT

George Perkins Marsh' s *Man and Nature* was an influential document through which some major environmental measures were initiated during the lat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Containing many insightful environmental perceptions regarding human influence on the earth, *Man and Nature* had been the most forceful arguments

1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3-H00001). 초고를 흥미롭게 읽고 세세한 오류의 수정은 물론 내용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제목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 그리고 편집인께 감사드린다.

crying for the governmental and civil actions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and to improve human conditions. Yet among the flooding modern histo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ssues, *Man and Nature* has not been duly studied as a significant historical document. In this essay I try to introduce the *Man and Nature* as a product of the man of his own age and of his own occupation as well as of his own will and moral sentiments. Meantime, I also attempt to extract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s of nature and ambiguous moral images of wilderness which have been dominating the environmental discourses.

Key Words: George Perkins Marsh, *Man and Nature*, environmental history, wilderness, nature

1. 조지 마쉬의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지 퍼킨스 마쉬(George Perkins Marsh, 1801-1882)의 『인간과 자연』은 인간이 자연에 미쳐 온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며 그 대책을 논했던, 1864년 출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저술이었다.²⁾ 그리고 이 책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미국은 물론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을 이끌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경의 시대라는 20세기 후반, 환경사학자나 환경철학자들은 이 책이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20세기 초반 미국 혁신기의 자연보존 활동(conservation movement)에 영감을 제공했다고 매우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2) George P. Marsh, *Man and Nature: Or, Physical Geography as Modified by Human Ac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 1864). 그 해에 절판이 된 이 책은 1871년에 4쇄를 찍은 후, 1874년에는 *The Earth Modified by Human Action, a New Edition of Man and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 1874)로 그리고 마쉬의 사후 *The Earth as Modified by Human Action, a Last Revision of Man and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 1884)로 출판되며, 1866년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1872년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George Perkins Marsh, *Man and Nature: Or, Physical Geography as Modified by Human Action*, Reprint with Introduction, Annotations, and Many Later Addition, ed. David Lowentha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1965)을 이용했다.

논의하지 않아왔다. 마쉬가 『인간과 자연』에서 자연은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돌보아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environmental movement)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자연관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실제로 마쉬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쓸모없는 황무지(waste land)로 보았다. 마쉬는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preserve)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는 듯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 버려진 황무지를 개발하고 손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언어에는 자연을 여성화하며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 보는 듯한 수사가 엿보이는 듯싶기도 했다.³⁾ 인간이 자연을 돌보아야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주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임을 강조하는 생각을 성적 은유를 구사해 가며 표현한 인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는 생존을 위해 간단없이 자연과 맞서 싸워야했던 19세기 미국인 마쉬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감성을 통하여 읽는 마쉬 상이다. 사실 마쉬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회 내에서 여성, 노예, 가난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지니고 활동했던 법률인이자 정치인이었다. 마쉬가 살았던 사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자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속에서 그가 무슨 활동을 하며 살아 왔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언어가 자연에 대한 적의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독해임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자연』에 나타난 마쉬의 자연관은 인간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행정인 또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연관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한 미국 정치인이 신생국 이탈리아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쓴 책이었다. 이제는 미국의 중심부가 되어있는 시카고 지역이 아직도 미개척지로 여겨지던 시대에 살았던 마쉬는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고려해 본 일은 없었다. 아무도 누군가 그런 질문을 그에게 던진 일 역시 없었을 것이다.⁴⁾

3) 환경 운동가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되는 『인간과 자연』의 마지막 문장에서 마쉬는 “인류와 주변 물질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자신의 작업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인지 또는 그녀[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한 걸음을 더 해 주는 노력”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is another step toward the determination of the great question, whether man is of nature or above her.”

4) 조지 마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전기로 David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rophet of Conservation*, Foreword by William Cron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이 있다. 마쉬와 그의 작업들을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사 속에서 녹여내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전기는 마쉬를 미국사 속에서 틀 지우려는 시도 대신 마쉬가 살아왔던 도시, 주, 주변 인물들을 포함한 사적 공간을 세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학자들이 굳이 마쉬의 존재를 역사서 속에 자리매김해야 했을 때, 마쉬의 『인간과 자연』은 이 책이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원생지(wilderness) 보존운동의 선구자로 그려져 왔다. 예를 들어 15세기 말 “이상한 신세계” 아메리카의 발견으로부터 21세기 초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기까지 미국의 환경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펼쳐내는 존 오피의 역작에서 마쉬는 “원생지를 보존하자는” 국립공원 설립운동의 선구자로 아주 간단히 소개된다.⁵⁾ 이는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가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존론(conservation)과 보전론(preservation)사이의 갈등의 역사로 지나치게 도식화 되어 그려져 온 데 기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운동의 역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자는 보전론이 효율적으로 자연을 이용하자는 보존론을 극복하여 원생지를 지켜나가는 노력의 역사로 도식화 되어 그려져 왔기 때문이었다.⁶⁾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20세기 후반의 환경담론이 지나치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생지의 보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마쉬의 『인간과 자연』은 새로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⁷⁾ 그리고 그의 인간관과 자연관은 이제 20세기 후반의 원생지 신화, 자연예찬의 미망을 벗어 던지고 우리 사회 속의 주변부 사람들을 돌보며 소홀히 여겨 온 생활환경이나 작업환경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로 밝히지 않은 마쉬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는 이 전기와 『인간과 자연』에 붙인 로웬탈의 주석에 의존했다. 이 책은 1958년 콜럼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로웬탈 자신의 *George Perkins Marsh, Versatile Vermonter*를 토대로 다시 쓴 마쉬 전기이다.

- 5) John Opie, *Nature's Natio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cation, 1998), pp. 372-373.
- 6) 환경 사상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구도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Donald Worster는 그의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1985/1977)에서 자연을 보는 시각을 목가적 자연관과 제국주의적 자연관으로 나누는 구도를 이용하여 환경사상의 역사를 기술해 낸다. 그 자연관의 차이가 실제 정치적 갈등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자연을 정원의 이미지 속에서 구현해 내려는 목가적인 태도와 힘과 부를 창출해 내려는 기술지향적인 태도의 이분 구도 속에서 표현되기도 했다. Leo Marx,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1964)를 보라.
- 7) 로웬탈은 다음 논문을 비롯한 여러 발표를 통하여 마쉬의 글이 현대 환경론에 던지는 의미를 천착해 왔다. David Lowenthal, “Nature and Morality from George Perkins Marsh to the Millennium,”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6-1 (2000): 3-27; Lowenthal, “Environmental History From Genesis to Apocalypse,” *History Today* 51-4 (April 2001): 36-42; Lowenthal, “Environmental History: From the Conquest to the Rescue of Nature,” in *Cultural Encounters with the Environment: Enduring and Evolving Geographic Themes*, ed. Alexander B. Murphy and Douglas L. Johnson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0), in pp. 177-200.

살펴 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마쉬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역사적 독해작업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⁸⁾ 이 책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위해서는 마쉬가 살았던 19세기 초 ‘중반의 미국 사회와 자연을 살펴보아야 하며, 마쉬의 사회적 삶 역시 살펴 보아야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은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로서보다는 19세기 초 ‘중반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연구결과들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보아야한다.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역사적 분석 대상으로 살펴 볼 때 이 책은 또한 환경사의 정체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환경담론을 위해 소중한 성찰들을 제공해 준다.

2. 조지 마쉬의 시대에 자연은 얼마나 거칠고 잔혹한 모습이었는가

조지 마쉬의 젊은 시절, 그가 살고 있던 버몬트 주의 주민들은 모두 그 지역의 삼림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마쉬 자신은 그가 살고 있던 우드스톡 주변의 삼림이 벌채와 화재로 민둥산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삼림이 사라지면서 마을이 수재를 겪는 모습도 지켜보아야 했다. 물론 쇠락해 가는 목재 산업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도 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지 마쉬 이외에도 좀 더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자연 자원의 한계나 취약성을 논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한 편, 마쉬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환경은 우선 극복해야 할 거칠고 잔혹한 실재였다. 조지 마쉬의 할아버지 조셉 마쉬는 1772년 코네티컷 주에서 버몬트 주로 이주해 지역 민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두 차례 버몬트 주의 부지사를 지냈다. 조지 마쉬의 아버지 찰스 마쉬(Charles Marsh)는 조셉 마쉬의 열 두 자식 중 여덟째로 태어나 코네티컷 주의 다투마우스 칼리지를 마치고 역시 코네티컷 주에 있는 리치필드 법대를 거쳐 1789년 버몬트의 우드스톡에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찰스 마쉬는 1790년 결혼하여 우드스톡 뒤편의 톰 산 산자락에 집을 짓고 그 해에 첫 아들을 갖지만 1793년 부인은 딸을 출산하면서 죽었다. 1798년 찰스 마쉬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 역시 남편을 잃고 두 살 된 딸을 데리고 있던 수잔 퍼킨스 아놀드(Susan Perkins Arnold)였다. 이어 이들 사이에서 조지 마쉬를 포함하여 네 아들과 딸이 태어난다. 찰스 마쉬와 첫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대학을 마친 뒤 젊어서 죽으며, 조지 마쉬의 두 친형제들 중 한명도 40대에 병사한다. 다만

8) 홍금수는 그의 장대한 논문 “環境史 研究 序說: 마쉬의 비판적 환경인식에서 성찰에 기초한 탈 근대적 환경윤리의 정립까지”, 『문화역사지리』, 17-3 (2005): 69-100에서 마쉬의 『인간과 자연』에 어떤 주제에 관한 글이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실려 있는가를 대략 요약해 보여 준 후, 놀라울 만큼 다양한 환경사 연구 의제들을 정리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친척들 중에는 나중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되는 조카사위 조지 에드먼즈 (George Franklin Edmunds, 1828-1919)가 미합중국의 유력한 상원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여러 모로 마쉬를 돕게 된다.⁹⁾

예닐곱 살 때 눈병을 앓기 시작해 4년간 고생을 하며 거의 실명할 뻔 했던 조지 마쉬는 대신 예리한 청력을 지녔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언어학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드스톡 주변의 학교들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의 필립스 아카데미를 거친 후 마쉬는 열다섯 살의 나이로 다트마우스 칼리지에 입학한다. 다트마우스 칼리지는 그의 아버지와 아직 살아 있던 이복형의 모교이기도 했는데, 두 살 위인 그의 형 린든 아널드 마쉬와 사촌인 제임스 마쉬가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조지 마쉬는 너댓살 나이가 많았던 동료들과 사회활동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거의 어울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도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다. 당시 칼리지의 교과목은 그리스, 라틴어 고전과 수학이 중심이었으며 약간의 철학과 신학이 더해지는 정도였다. 물론 화학이나 지질학 같은 자연과학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다. 이미 고전어들을 쉽게 읽어내고 있었던 마쉬는 칼리지 학생시절 고전어 대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을 혼자 공부했다. 졸업 후 열아홉 살에서 스물세 살까지 노위치 아카데미에서 고전어를 강의하며 4년을 보내면서 마쉬는 독일어, 덴마크어, 화란어, 스웨덴어 등 북유럽 언어들을 계속 공부해 나갔다. 그리고 1825년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버몬트 주의 북쪽 끝자락에 있으며 급속히 인구가 늘어가던 벌링턴에 법률사무소를 연다. 1828년 벌링턴 지역 경제 및 종교계의 유력한 인사의 딸인 해리엇 뵐(Harriet Buell)과 결혼하는데, 해리엇은 1832년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급속히 쇠약해지며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열흘 남짓 뒤, 첫째 아들 역시 어머니의 병환 중 발병한 성홍열로 죽고 만다.

첫 부인을 잃으며 장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마쉬는 그 후 버몬트 주 의회에서 정치활동을 벌이면서, 금융업과 투자 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실패로 끝나곤 했다. 주 의회에서의 주요 활동은 당시 난립하고 있던 철도 부설 사업의 인허가와 세금 조정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철도 사업가들이나 일반 사기업들의 도덕성

9)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기(biography)는 과학의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그 배경 스케치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의 실행과 제도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과학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눈을 뜨면서 과학사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삶을 매우 중요한 과학사의 연구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기를 쓰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과학사에 있어 전기적 서술의 중요성과 그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Telling Lives in Science: Essays on Scientific Biography*, ed. Michael Shortland and Richard Ye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을 보라.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과학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Janet Browne, *Charles Darwin: The Power of Pl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를 보라.

결핍증에 대해 강렬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사업 활동의 무대를 넓힐 요량으로 미시시피 주와 시카고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 보기도 했는데, 마쉬의 눈에 그 지역들은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황량한 경관 속에서 격렬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문명세계의 끝자락인 프런티어였다. 프런티어 국가의 국민이었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민으로서 마쉬는 이미 순치된 문명세계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그런 마쉬에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생지는 두려운 세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황량한 세계일뿐이었다. 법률문제로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태도에 대해서도 마쉬는 혐오감을 감추기 힘들었으며, 의뢰인은 점차 적어졌고 결국 법률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된다. 그 와중에도 마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의 흔적을 발굴하는 모임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며 옛 아이슬란드 언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번역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첫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옛 언어에 관한 책을 출판한다.¹⁰⁾

바이킹과 북유럽에 대한 마쉬의 관심이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만은 아니었다. 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치적 종교적 행사에 관여하면서, 그리고 각지의 농업 진흥행사(county fair)에서 농축산물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주 정부의 공복으로서, 마쉬는 자신이 살고 있던 뉴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의 삶과 종교 그리고 도덕적 뿌리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북 유럽의 고트족 또는 바이킹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적 태도, 즉 퓨리탄 정신은 민주적이고 경건하고 부지런한 고트족의 정신과 같은 뿌리를 지녔다고 그는 생각했다. 퓨리탄 정신의 반대쪽에는 전제적이고 감성적이며 게으른 가톨릭 정신이 있을 것이었다. 1835년 주 의회에서 마쉬는 “자유를 파괴하고 전제를 키우는 노예근성의 양성소”인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연방 의회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7년이 아니라 21년으로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퓨리탄 정신을 바이킹 정신과 동일시하는 근거는 아주 오래된 히포크라테스 또는 몽테스키외 유의 환경결정론이었으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국가 정체성 만들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¹¹⁾ 마쉬의 친구들조차 마쉬의 고트주의 그리고 퓨리탄주의는 지나치게 편벽되고 왜곡된 종교관, 인종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마쉬의 북유럽 신비주의를 쉽게 간파했을 많은

10) George P. Marsh, *A Compendious Grammar of the Old-Northern or Icelandic Language: Compiled and Translated from the Grammars of Rask* (Burlington, Vt., 1838).

11) 히포크라테스로부터 몽테스키외로 그리고 그 후에도 20세기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환경 결정론적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데이비드 아널드, 『인간과 환경의 문명사: 서양 제국주의는 세계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미석 옮김 (한길사, 2006/1996)에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인들이 19세기 후반 사회다원주의나 인종주의에 집착하게 되는 반면, 마쉬 자신은 『인간과 자연』을 통하여 만연해 있던 환경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사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¹²⁾

1839년 서른여덟 살의 마쉬는 스물두 살의 재기 넘치는 기숙학교 교사 캐롤라인 크레인(Caroline Crane)과 결혼했다. 1843년 마쉬는 버몬트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 그 해에 부인 캐롤라인은 뇌일혈 증세를 보이고 쓰러지며 기동력을 잃었다. 만년에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면서 캐롤라인은 약간의 기력을 되찾기는 했지만, 거의 평생 주변의 도움 특히 자신의 여동생 루시와 마쉬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하게 된다. 캐롤라인이 쓰러진 직후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둘째 아들이 장티푸스를 앓아누워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조지 마쉬와 같은 이름을 쓰던 이 둘째 아들은 하버드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도중 또 장티푸스에 걸려 우드스톡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독립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어린 시절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다.

역사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16세기 중에 유럽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과정이 유럽인들이 옮겨준 전염병 때문에 매우 급속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염병이 어떻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휩쓸며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즐겨 생생하게 묘사하곤 한다.¹³⁾ 하지만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에게도 자연은 역시 아름다운 감상물이기보다는 무서운 적이였다. 1840년대에는 마쉬의 동생 조셉 마쉬와 여동생 사라 마쉬가 오래 앓다가 죽어갔다. 함께 대학을 다녔던 사촌 제임스 마쉬도 이때 병으로 죽었다. 많은 그의 사촌들, 조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은 물론 한창 나이에 돌 결핵, 콜레라,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으로 쓰러져 갔다. 의사였던 외할아버지는 유행하던 황열병을 동물자기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황열병이 유행하던 지역을 찾아다니던 중 그 병에 걸려 죽었으며, 조지 마쉬 자신은 어린 시절에 뇌막염이 유행하던 우드스톡을 떠나 주 내의 다른 지역의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삶은 아슬아슬한 곡예였으며, 주변의 자연 곳곳이 위험한 장소, 건강에

12) 로웬탈은 당시 유럽의 상황과 마쉬의 바이킹 페티시 사이의 유사성을 명료하게 보여주면서,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을 벗어나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마쉬의 시각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p. 52-67을 보라. 환경 결정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서양 문명사를 꿰뚫어 지배해 왔는지는 앞의 아널드, 『인간과 환경의 문명사』 외에도 Clarence Glacken, *Traces on the Rhodian Shore: Nature and Culture in Western Thought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에서 볼 수 있다.

13) 앨프리드 크로스비,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김기윤 옮김 (지식의 숲, 2005/2003/1972), pp. 79-116.

해로운 장소, 병에 걸리기 쉬운 장소 등으로 알려져 접근이 금기시되곤 했다.¹⁴⁾ 위에서 인용했던 『인간과 자연』의 마지막 문장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 마쉬에게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남을지 이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매 순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삶의 일부였다.¹⁵⁾

합중국 하원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마쉬는 새로 설립되는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어떤 성격의 기관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많은 의원들이 한 영국인이 기증한 50만 불이 넘는 거액의 돈을 농업과 실험과학 진흥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마쉬는 박물관 또는 국립 도서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1847년 초대 협회장을 맡게 되는 조셉 헨리(Joseph Henry, 1797-1878)의 보조역으로 젊은 조류학자 베어드(Spencer F. Baird, 1823-1888)를 천거하게 된다. 베어드는 1850년 협회의 수집품을 총괄 관리하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결국 협회장 직위까지 오르게 되는데, 신변의 변화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쉬가 편지를 썼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다. 예를 들면 훗날 『인간과 자연』을 쓰기 시작하던 날 그는 베어드에게 들뜬 기색으로 그의 계획을 알리는 편지를 쓴다. 호전적인 대 멕시코 전쟁에 대한 마쉬의 비판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대통령은 1849년 3월 마쉬를 터키주재 공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쉬가 다른 물건들에 앞서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베어드에게 보낼 동식물 표본을 만들 도구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터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마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온도계, 기압계, 수준기, 나침반 등을 지니고 지형과 동식물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 내용이나 표본들을 스미스소니언의 헨리와 베어드에게 보내곤 했다.¹⁶⁾

당시 중동지역에 파견되는 미국 외교관의 위상은 매우 초라했다. 여러 나라들이 대사 또는 전권공사를 파견하고 있었고, 마쉬는 직위도 높이고 보수도 올려줄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미국의 외교관이 직위나 보수 면에서만 뒤쳐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14) Linda Nash, *Inescapable Ecologies: A History of Environment, Diseases, and Knowled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15) 역사학자들은 환경사가 위생사 또는 의학사와 별개의 분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환경사가 지나치게 인간보다는 비인간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생, 의학사 영역을 배제해 왔다는 자각이다. *Landscapes of Exposure: Knowledge and Illness in Modern Environments*, eds. Gregg Mitman, Michelle Murphy, and Christopher Sellers, *Osiris* 19 (2004)의 주제들, 특히 pp. 203-219의 Linda Nash, “The Fruits of Ill-Health: Pesticides and Workers’ Bodies in Post-World War II California,” 를 보라.

16) George Perkins Marsh, “Notes on Vesuvius, and Miscellaneous Observations on Egypt (from Letters to the Smithsonian Institution from a Traveller in the East),”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2nd ser. 13 (1852): 131-134.

마쉬를 맞는 외국 외교관들은 대개 미국의 신임 외교관이 그들의 공용어인 불어를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마쉬는 고향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전임자들이 대대로 불어를 못해 외교관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게으르고 무지해서 타국 외교관들이 미국 정부를 신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경이었다고 평했다. 터키 영내의 미국인들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영사관에 갖가지 편의를 요구하고 낮 뜨거운 사건들을 일으키곤 했으며, 영사관 직원들은 아주 단순한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곤 했다고 마쉬는 전하고 있었다.¹⁷⁾ 미국인 직원들과는 달리 영국 외교관들을 비롯하여 유럽 외교관들은 흔히 훌륭한 교양과 식견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철학 역시 건전해 보였다. 유럽 외교관들보다 훨씬 적은 보수, 열흘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규정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던 마쉬는 1851년 벽두에 오토만 제국을 좀 더 널리 둘러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워싱턴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답신이 오기도 전에 서너 달 계획으로 이집트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는다. 그 간 마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을만한 측량 및 관측기구들을 구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특히 이집트와 소아시아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인간의 손길에 의해 변화된 흔적이 뚜렷한 중동지역의 경관에 놀랐다. 한 편지에서 그는 “내가 피라미드나 사원이나 무덤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 들판이 평평하게 닦이고, 언덕이 둥글게 깎여 있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파고 심고 거두며 손질하는 동안 유순해지고 닳아버린 행성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라고 지표를 변화시킨 인간의 힘에 대해 자신이 받은 깊은 인상을 전하고 있었다.¹⁸⁾

마쉬의 희망과는 달리 새 대통령 퍼스는 1853년 신임 공사를 임명했고 마쉬는 고향으로 돌아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시절을 보낸다.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의지나 수완이 없었던 데다가 철도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다. 마쉬는 새로운 외교직 임무를 청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터키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럽의 외교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를 받았으며 많은 외교업무를 자신의 사비를 써가며 수행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소급해서 보수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그의 빚을 청산해 주기로 결정하는 1860년까지 마쉬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고사해야 했는데,

17) 어쩌면 마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나중 이탈리아 전권공사 시절 마쉬는 아예 미국으로부터 임명 파견된 자신의 비서를 젓혀두고 현지에서 개인 비서를 채용했다.

18) George Marsh가 영국 외교관 James Bucknall Estcourt에게 보낸 1851년 7월 18일자, 8월 23일자 편지. Estcourt는 마쉬가 국회의원 시절 워싱턴에서 알게 되어 마쉬의 비판적이었던 영국관까지 바꾸어 놓은 친구가 되었다. 마쉬는 이어서 자신들이 미국에서 함께 보았던 지형은 몇 천배는 더 새 지구라는 느낌을 주었고 대부분의 지형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것으로 보였음을 상기시킨다.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 91.

당시 교수직의 보수가 너무도 신통치 않아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은 보수를 기대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특강을 맡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영문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보수를 기대하고 두 차례에 걸쳐 중서부 지역으로 순회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프런티어 지역 사람들의 고달프고 무료한 삶과 거칠고 야만스러운 거주자들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먹을거리에 몸서리를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가 강연을 위해 찾았던 미시시피 주 지역이나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아직 인디언들과의 “전쟁” 이 한창인, 문명세계와 원생지의 접경지 즉 프런티어였다. 그리고 접경지 저쪽의 자연세계는 마쉬의 생활영역이 아니었다.

정치인으로서의 마쉬는 사회적인 약자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적인 이해 때문에 공공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저지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젊은 시절 법률 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도 사건을 의뢰하는 개인들이나 사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동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가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철도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던 철도사업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벤처사업이었으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마쉬는 개인이나 영리업체에 철도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이후 산림을 보호하는 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철도를 부설하는 일들은 결코 개인 또는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쉬의 일관된 입장이 될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쉬가 미국의 행정관리들을 그다지 신뢰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터키에서 공사로 일할 때는 물론 워싱턴 국회의원 생활에서 이미 마쉬는 유럽의 외교관들에 비해 미국의 외교관들을 포함한 관리들이 대체로 무지하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림 벌채사업이나 철도부설과 같은 자연자원이나 공공시설의 관리 등 중요한 사안은 “영혼이나 양심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는” 사기업의 운영자들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국가기관의 관리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¹⁹⁾

1861년 마쉬는 치열한 통일 독립운동을 거쳐 새로 태어나는 이탈리아에 초대

19) Marsh, *Man and Nature*, pp. 51-52, in note 53.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에서 찾는다: “그 예를 미국에서 찾을 수 있으니, 그 집단의 행동원리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닌 집단의 이해관계에 달려있는 사기업은—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이성적인 자유, 공공의 도덕적 관심, 공정한 입법 및 사법 행위, 신성한 개인의 권리에 반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다. 인용은 p. 52. 마쉬의 진술들은 당시 미국 정부가 사기업을 제대로 통제할 행정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마쉬의 시각은 물론 추후 환경주의자들의 환경보전운동과 관리들의 환경보존론 사이의 특수한 갈등 양상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전권공사로 임명된다. 유력했던 경합자가 하필 독일계 인사로서 합스부르크가의 정치적 압제를 기억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던 덕도 있었지만, 버몬트 주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링크를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노예제를 맹렬히 비판했던 마쉬의 태도는 그가 대표했던 버몬트 주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60세의 나이에 신생국 이탈리아의 임시 수도인 튜린으로 떠나는 마쉬는 앞으로 강력한 정치인이 될 조카사위 에드먼즈의 지원 아래 여러 대통령을 거치며 20여년을 이탈리아 주재 전권공사로 근무하게 되고,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날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3. □ 인간과 자연□ 에는 마쉬의 삶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

마쉬는 □ 인간과 자연□ 에서 “인간의 활동이 자신의 서식처인 지구의 물리적 조건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시켜 왔는지를 대략 살펴보고자” 했으며, “세상의 생물이나 무생물들이 스스로 형성해 놓은 상태를 큰 규모로 간섭할 때 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지” 를 보여 주고자 했다. 나아가 마쉬는 “황폐하고 버려진 지역의 교란된 조화를 회복시키고 물질적인 개선을 꾀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요함을 지적” 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동안,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 삶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인간은 그 종류로 보나 그 정도로 보나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 임이 드러나 보이리라 기대했다.²⁰⁾

긴 서론에서 마쉬는 우선 번성했던 옛 로마제국의 영토가 폐허로 변한 원인을 고찰한다. 분명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질학적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 역시 제국의 영토가 폐허로 변하는 데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원인은 아마도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무시했거나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며, 또한 전쟁이나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 전횡과 잘못된 지배행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분석한다. 그리고 그 예로 마쉬는 로마의 농촌지역을 황폐하게 만든 세제나 농경 관리 및 잘못된 규제 등을 나열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 지구를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이 지구는 소비재가 아니며 마구잡이로 쓰고 버릴 소비재는 더구나 아니다.”²¹⁾

20) Marsh, *Man and Nature*, Preface in p. [3].

21) Marsh, *Man and Nature*, Introductory, 인용은 p. 36: “Man has too long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를 빌려 사용하는 인간이 지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살피고 돌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다듬고 가꾸어야 한다고 마쉬는 주장한다. “토양은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자극을 해주어야하며,” 따라서 “현명한 경제를 통하여, 그간 소홀히 다루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연을 아름다움, 건강, 그리고 끊임없이 넘치는 부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간의 기예를 통해 구해 내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점차 물리적인 풍화를 겪으며 나무 한그루 없는 산등성이들, 풀 한그루 없는 언덕들, 그리고 음습한 평원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²²⁾ 이어지는 각 장에서 마쉬는 동식물의 이주와 절멸, 삼림, 수계, 모래벌이 어떻게 인간의 영향 아래 변화해 왔는가를 논한 뒤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이 자연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²³⁾

이러한 마쉬의 논의를 현대 환경론의 계파들 중 하나에 끼워 넣는 작업은 마쉬의 역사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의 본문 첫 두 쪽에서 그는 극성기 로마제국의 영토가 당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로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국의 기후는 온화하고 토양은 비옥했으며 식물 및 광물 자원도 풍요로웠다. 그런데, 당시 로마제국의 영토 내 농경지에서 볼 수 있었던 포도, 올리브 등 식물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대부분 이탈리아 원산은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손으로 그 지역에 들여와 풍토에 맞추어 경작되고 순치시킨 결과였다. 이렇게 극성기 로마 제국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첫 두 쪽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로마제국의 이야기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풀어 나가는 가장 극적인 플롯을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쉬는 신생국 이탈리아에 파견된 미국의 초대 전권공사였다.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프랑스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로마 교황청이 이탈리아 세속정권의 행정부서로 편입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교황에게 약속을 했다. 가리발디는 곧바로 로마로 입성하지 못하고 튜린을 임시 수도로 정했는데, 주재 외교관들은 이 작은 도시 튜린에서 숙소는 물론 공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인간과 자연』이 집필된 장소는 튜린에서 기차로 네 시간 거리였던 제노아 바닷가의 호텔 숙소였는데, 1863년 7월 집필을 끝낸 장소는 그 해 초 이사한 포강 유역의 저택에서였다. 얼마 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입성을 노리며 로마와 좀 더 가까운 피렌체로 임시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산적한 문제들을

forgotten that the earth was given to him for usufruct alone, not for consumption, still less for profligate waste.”

22) Marsh, *Man and Nature*, p. 29, p. 42.

23)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홍금수, “環境史 序說,” pp. 77-81을 보라. 삼림 관리에 대한 역사를 제외하고, 19세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동식물 이주문제, 물 관리, 모래언덕에 대한 자연지리 논의는 아직 역사적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미개척 분야이다.

처리해야 했던 신생 독립국 이탈리아 관리들이 대체로 열성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마쉬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관리들이 언제나 자국 국민들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듯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불어로 대화하며 귀족티를 내는 관리들에 비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 이탈리아인들의 삶은 미국 개척지 주민들의 삶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다. 원색적인 용어로 이탈리아 고위 관리의 무능과 부패를 지탄하는 마쉬의 비밀 외교문서가 유출되어 신문에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북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탈리아의 독립영웅 가리발디를 북군의 장군으로 영입하자는 수군거림이 워싱턴의 정가에 퍼지고 있었는데, 이 수군거림이 그를 북군 사령관으로 모시겠다는 제안으로 와전되어 가리발디에게 전해지고, 실제로 미국행을 고려하는 가리발디의 모습은 마쉬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했다.²⁴⁾ 마쉬는 귀가 얇고 감성적인 이탈리아 정치인들로부터 옛 로마의 관리들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옥했던 옛 로마제국의 영토 중심부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많은 지역의 산지에서 숲은 사라졌고, 농경지의 비옥한 표토는 씻겨 내려가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 곳곳에 널려있던 샘과 내는 말라버렸고 옛 문헌과 노래에 남아있던 도도한 강줄기는 자그마한 개천으로 변해버렸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질학적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풍요로운 자연을 시샘하였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일부러 숲을 불태우고 물줄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쉬는 이들보다 자연법칙을 무시하게 되는 무지와 전쟁 그리고 특히 정치조직과 종교계의 서투르고 독선적인 관리가 로마제국 영토를 황폐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제국 영토 내 경관을 파괴한 원인중의 원인은 로마 제국 스스로가 그 정복지는 물론 자국 영토에 대해 야만적인 수탈을 행한 결과였을 것이다.²⁵⁾ 로마의 속지들 각지에서 자행된 폭력과 기만의 흔적들이 일부 유럽 지역과 특히 중동지역 곳곳에 아직도 또렷이 각인되어 있음을 마쉬는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 인간과 자연□ 의 마지막 장에서 마쉬는 수에즈 운하로 시작해서 여러 운하를 건설하고 물길을 바꾸는 공사를 제안하고 있다.²⁶⁾ 이 역시 마쉬를 환경운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독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앞 장에서 해양과 담수를 다루며 댐을 만들고 물길을 바꾸는 작업의 득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따져보던 마쉬의 태도와도 상당히 달라 보인다. 마쉬는 인간이 지닌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자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유별난 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힘이 그 자체로 파괴적인 힘이건 건설적인 힘인가를 평가하려는 의도 같은 것은 없었다.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던

24)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p. 242-266.

25) Marsh, *Man and Nature*, pp. 10-13.

26) Marsh, *Man and Nature*, pp. 437-454.

생각은 많은 유럽인들이 굶주리는 이유가 생산되는 식량의 수요보다 크게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그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철도를 부설하고 운하를 개설하는 일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쉬의 『인간과 자연』은 민주적 신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세련된 유럽문화와 유럽 지식사회를 책과 교유를 통해 체화하고 있던 신생국 미국의 한 외교관이 써 낸 책인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마쉬의 시각을 구체적인 언어로 형상화해 주었던 유럽 지식체계는 환경 보호론이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자원관리 정책도 아니었다. 19세기 전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폭 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지리학이었고, 마쉬는 특히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 리터(Karl Ritter, 1779-1859), 그리고 귀요(Arnold Henry Guyot, 1807-1884) 등이 자연지리의 특성들이 어떻게 인간의 사회에 그리고 그 사회의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논하는 새로운 지리학에 큰 흥미를 느꼈다. 이들의 논의는 주로 인간의 문명에 영향을 끼쳐 온 자연지리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논의들로부터 마쉬는 많은 자연 지리적 특성들 자체가 지표의 물리적 변화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분석에 이르게 된다. 사실, 지질학적 변화나 기상의 변화가 인류의 문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왔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마쉬는 적시한다. 이에 비해 자연에 미치는 인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명인들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추적된다.²⁷⁾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은 말라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무더기로 벌목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림 속에서 나무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곤충들이 숲 전체를 파괴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건이다. 원시인들이 숲을 이용하는 모양새 역시 보통은 커다란 숲 전체를 파괴하는 형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백인들이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또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 벌목을 하는 모습은 전혀 단위가 다른 큰 규모로 전개된다. 사냥을 위해서 또는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새들을 닦치는 대로 쏘아 없었는데, 전혀 없이 크게 번지는 산림의 해충은 아마도 그 해충들의 천적이 되는 새들이 사라진 결과일 것이다.²⁸⁾

이렇게 현대 생태학의 먹이사슬이나 천이를 연상케 하는 언급은 『인간과 자연』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가 인용하는 전거들은 당시의 새로운 지리학 저술들에 그치지 않는다. 고대 로마제국의 자연환경은 플리니우스의 자연사로부터 그려내고 있으며, 산림과 그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프랑스와 독일 학자들의 문헌에 주로 기대고 있다. 그리고 댐과 하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네덜란드나 스웨덴 문헌에도 의존하고

27) Marsh, *Man and Nature*, p. 13, p. 28.

28) Marsh, *Man and Nature*, pp. 29-35.

있으며, 가끔 그가 잘 알고 있는 언어학 문헌을 길게 소개하면서 용어의 어원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문헌을 소개하고 어원을 추적하거나 흥미로운 일화들이 담겨있는 각주는 실제로 □ 인간과 자연□ 전체 분량의 20% 정도나 된다. 마쉬가 이렇게 수많은 19세기 전반 유럽학자들의 연구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 인간과 자연□ 이 창조적인 작품이 못 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의 그 어느 연구물도, 자연에 미친 인간의 영향에 대해 그렇게 넓은 지역의 수많은 언어로 서술된 역사적 사료, 과학적 자료, 그리고 여행기 등을 동원한 연구물은 없었다. 게다가 마쉬가 인용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자연과 인간을 논하는 당시 학자들의 연구물들은 아직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 된 일이 거의 없었다.²⁹⁾

이렇게 당시의 온갖 연구물들을 섭렵하여 서술된 역사적 자료라는 점 외에도, □ 인간과 자연□ 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쉬는 로마시대의 저자들이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지역을 매우 황량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그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19세기에 마쉬의 눈앞에 펼쳐진 그 지역의 풍요로운 경관과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자연 경관의 변화가 인간을 위해 해로운 것만은 아님” 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이천년 전 숲으로 뒤덮여 있거나 습지여서 쓸모없던 광활한 지역들이 지금은 정돈된 경작지로 또는 주거지로 변했다. 그 원인을 지질학적 변화나 기후 변화로 돌릴 수는 없으니, 이러한 개선은 결국 오랜 기간 인간의 손길에 의해 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연을 누르고 인공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표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필요”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마쉬가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인간이 과도하게 해 왔다” 는 점이다.³⁰⁾ 인간에 의해 자행된 많은 해로운 변화에 비하면 이루어진 개선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그림” 이어서, 많은 지역에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버렸다. 지구는 급속히 인간의 서식처로서 마땅치 않은 장소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간이 역사 속에서 보여 준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변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아마도 “인간은 절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리라” 고 마쉬는 전망한다.³¹⁾

4. 환경사에서 마쉬는 어떻게 그려져 왔는가

29) 다만, John C. Greene, *American Science in the Age of Jefferson* (Ame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4)를 보라.

30) Marsh, *Man and Nature*, p. 18, p. 38.

31) Marsh, *Man and Nature*, p. 43.

이렇게 환경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그 환경의 보존을 주창했던 마쉬는 당연히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역사서 속에서 마쉬의 실제 위치는 희미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의 주장을 다루는 연구도 이상하리만큼 약소하다. 예를 들어, 미국 환경보존운동의 역사를 다루는 그의 영향력 있는 책에서, 폭스는 하버드 대학 아놀드 식물원의 찰스 사전트(Charles Sprague Sargent, 1841-1924)가 마쉬의

“선구적 저작 『인간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1880년 최초로 미 연방정부의 산림조사를 기획 실행하게 되었다는 단 한 문장으로 마쉬를 언급하고 있다.³²⁾ 폭스가 환경보존 운동의 시발점을 자신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뉘어로 잡아 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를 다루는 책에서 『인간과 자연』에 실려 있는 실직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는 관행은 여전히 이상해 보인다. 환경보존 운동의 역사 서술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책에서 폭스는 상업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판단 또는 효율성에 기대는 전문인들에 대항하여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 온 “환경운동의 양심”의 대변자로 민중을 상정했다.³³⁾ 뉘어가 바로 이 민중을 대변하며 자연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보호론자의 원형이었다면, 대통령과 함께 사냥을 즐기며 산림 정책을 논했던 기포드 핀쇼(Gifford Pinchot, 1865-1964)는 전문인으로서 공리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데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마다 않는 정치인의 대변자였다. 그리고 폭스에게 마쉬의 인간 중심적인 시각은 환경보존 운동이 시작되기 전 시대에 살았던 핀쇼의 왜소한 선구자쯤으로 여겨졌던 것이다.³⁴⁾

물론 핀쇼 자신이 전문인, 관리, 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했을 리는 없다. 자서전에서 인용된 그 자신의 연설문에서 밝혔듯이 핀쇼는 “이 나라가 사람들의 복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지 또는 개인적 이득을 고려하는 자들에 의해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도덕적 선택”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32) Stephen Fox, *The American Conservation Movement: John Muir and His Legac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1981), p. 109.

로웬탈의 마쉬 전기에서는 사전트가 단순히 마쉬의 책을 통해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군의 학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대화와 편지를 나누면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뉘어나 핀쇼 이전에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는 훨씬 폭 넓은 자연론, 환경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p. 304-305, pp. 352-353, pp. 392-394 등을 살펴보자.

33) Fox, *The American Conservation Movement*, ch. 10, “The People and Politics: Amateur Tradition,” 특히 pp. [333]-351.

34) 폭스가 그려 낸 뉘어의 모습이 그렇게 비정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뉘어가 처음 산자락으로 잠적한 것은 남북전쟁에 이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옐로우스톤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리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집짓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자연 자원을 약탈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온갖 수탈자들을 편드는” 대통령 태프트에 대항해 싸웠던 투사였다.³⁵⁾ 핀쇼에게 미친 마쉬의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핀쇼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마쉬의 日 인간의 행위로 인해 변화된 지구日 를 스물한 번째 생일 선물로 받았다. 핀쇼는 마쉬의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한다. 책이 처음 출판되던 남북전쟁 당시 그 책을 읽고 산림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진정 존재했었는가? 자신이 산림청을 만들다시피 하기 전까지 산림관리원이라는 직업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핀쇼는 강조한다. 이렇게 핀쇼는 지나치다싶을 만큼 방어적인 태도로 마쉬의 역할을 낮추어 평가하는데,³⁶⁾ 그 후의 환경운동사 서술은 핀쇼의 마쉬 관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강조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환경보존 운동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미 혁신기 짝 되어서야 시작되는 듯싶고, 따라서 이곳 환경보존 운동의 역사에서도 마쉬의 입지는 신통치 못했다.³⁷⁾ 최근 이종민은 미 산림청의 형성과 성장을 주도하는 핀쇼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해 목은 보전론(이종민의 환경보호론) 대 보존론(이종민의 환경보존론)의 대립구도의 약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핀쇼의 입장이 산림관리직의 전문직업화를 지향하는 미국 행정관리의 시각임을 예리하게 보여주었다.³⁸⁾ 마쉬에게서도 역시 핀쇼와 마찬가지로, 아직 행정조직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시절 미국 관리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마쉬와 핀쇼를 병렬 비교하기 힘든 두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핀쇼의 관심이 온통 산림의 관리에 관한 것이었던데 반해 마쉬의 관심은 지구 전체의 모든 자연환경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힘이었다는 점이다.

20세기 초 중반 마쉬는 대체로 잊혀가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 1895-1990)와 지리학자 칼 소어(Carl Sauer, 1889-1975)가

- 35) Gifford Pinchot, *Breaking New Ground, Commemorative Edition*, Introductory Essay by Char Miller and V. Alaric Sample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8/1974/1947), p. 461, p. xiv.
- 36) Pinchot, *Breaking New Ground*, pp. xix-xx; Char Miller, *Gifford Pinchot and the Making of Modern Environmentalism* (Washington: Island Press, 2001), pp. 55-57, p. 362.
- 37) 이러한 경향은 역시 영향력 있는 역사가 Samuel P. Hays의 서술을 통해 고착되어 온 듯 보인다. *Conservation and the Gospel of Efficiency: The Progressive Conservation Movement, 1890-1920*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9, Originally published i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 [5]: “현대 미국의 환경보존 운동은 연방 행정관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르는 문제들, 정확히 말하면 물 관리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38) 이종민 “기포드 핀쇼와 미연방 산림청의 성장: ‘미국적’ 산림학과 산림학의 전문직업화, 1889-1903,” 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학위논문, 2006년 2월. 미래의 환경사 연구의 방향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논문이다.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힘을 드러내 보여 준 『인간과 자연』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고, 이들은 1955년 많은 학자들을 미국 뉴저지 주의 프린스턴에 불러 “지표를 변화시킨 인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쉬 페스티벌이라고도 불렸던 이 거대한 심포지엄의 발표 논문들은 화려한 장정의 책자로 다음 해에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쉬에게, 그리고 최초로 물과 도구를 사용한 사람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뛰어난 손재주와 두뇌로 지구 전체를 인간의 아늑한 거주지로 만들어 놓으며 우리들에게 연구주제를 제공 해 준 사람들”에게 헌정되었다.³⁹⁾ 이 헌정사에는 지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에 대한 오만한 자긍심이 한껏 부풀려져 그려져 있다. 그리고 심포지엄 발표문들에는 대체로 과학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리라는 기대가 스며있다. 이들이 마쉬의 이야기 중 주목한 측면은 황폐해진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이었으며, 이들에게 마쉬는 바로 그 인간의 자랑스러운 힘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책 말미에 실린 미래를 전망하는 멤포드의 글에는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기는 하다.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길게 살펴본 후 멤포드는 결론에서 “인간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통해 과학기술의 위험한 측면을 보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종류의 인간상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과학 기술의 전지전능한 힘은 결국 무지와 무능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는 모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발명을 꾀하거나 기구를 만들 때, “이 기획은 사랑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진작시키려는 목적 속에서 잉태 되었는가”를 물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연설을 마친다.⁴⁰⁾ 멤포드의 조심스러운 연설에는 열 핵 폭탄의 공포와 냉전시대의 우려가 깃들여 있다. 하지만 멤포드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이 미국인이었던 마쉬 페스티벌의 참석자들의 발표에서는 대체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힘, 특히 과학기술과 특히 과학기술자들의 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깃들여 있었다.

1987년 가을 매사추세츠 주 소재 클라크 대학에서는 마쉬 페스티벌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과학, 사회,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려는 심포지엄이 열렸고, 그 결과물 역시 독자를 압도하는 출판으로 이어졌다. 마쉬 페스티벌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마쉬가 사용한

39)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ed. William L. Thomas, j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To George P. Marsh / and to the earliest men who / first used tools and fire; and to the countless generations between / whose skilful hands and contriving brains / have made a whole planet their home / and provided our subject for study.”

40) Lewis Mumford, “Summary Remarks: Prospect,” in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pp. 1141-1151, in p. 1151.

표현을 약간 고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변형된 지구” 라고 정했는데, 출판된 책자에는 “지난 300년 간 일어난 생물권의 전 지구적 변화와 국소적 변화” 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책자에는 역사적 또는 사회학적 관점의 분석을 표방하는 글이 몇 편 있다. 하지만 이글들이 마쉬를 역사적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고 Ⅱ 인간과 자연 Ⅱ 의 내용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지 않았다. 발표 논문의 대부분은 정교해진 생태학적, 지질학적, 지리학적 방법론과 눈부신 그래픽을 동원하여 지난 이 삼백년간 지구상의 생물권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내용이었다.⁴¹⁾ 1955년의 마쉬 페스티벌 참석자들에 의해 표명된 낙관적인 시각, 즉 인간이 지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시각은 이제 크게 달라졌을 듯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마쉬 페스티벌의 발표 논문들이 대부분 수계(水界), 토지, 도시문제, 서유럽 농경의 생태학 등 매우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던데 반해서 1987년의 심포지엄 발표 내용들은 아프리카, 러시아, 멕시코, 북유럽, 중국, 브라질 등 여러 지역의 국지적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쉬 페스티벌의 참석자들이 주로 지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었다면, 1987년 심포지엄의 발표자들은 지리학자들과 함께 생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마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Ⅱ 자연과 인간Ⅱ 이 어떤 책인지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 단 한 사람이 발표 논문에서 마쉬를 언급하고 있으니, 바로 로웬탈이었다.⁴²⁾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세 학자들의 더듬는 듯 한 진술에 의하면 마쉬의 책이 환경 연구에 미친 영향은 평가하기 힘들다. 이 시대의 학자들 심지어 지리학자로나 인류학자들 중에도 그의 책을 접해 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Ⅱ 인간과 자연Ⅱ 이 1960년대의 생태운동을 예견한 책인 듯싶기는 한데, 그것도 이 책과 생태운동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해 낼 길은 없다는 것이 기조연설에서 소개된 마쉬와 심포지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다.⁴³⁾

그런 가운데에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환경은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고, 2000년에 데이비드 로웬탈은 반세기 전 자신이 출판했던 마쉬의 전기를 새롭게 수정해 출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⁴⁴⁾ 역시 오래 전 그가 정리해 출판했던 마쉬의 Ⅱ 인간과 자연Ⅱ 의 재판도 같은 해에 인쇄되었다. Ⅱ 인간과 자연Ⅱ 이 사람들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로

41) *The Earth as Transformed by Human Action: Global and Regional Changes in the Biosphere over the Past 300 Years*, eds. B. L. Turner II,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2) David Lowenthal, “Awareness of Human Impacts: Changing Attitudes and Emphases,” in *The Earth as Transformed by Human Action*, pp. [121]-135.

43) Robert W. Kates, B. L. Turner II, William C. Clark, “The Great Transformation,” in *The Earth as Transformed by Human Action*, pp. 3-4.

44) David Lowenthal, *George Perkins Marsh: Prophet of Conserv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로웬탈의 홍보에 힘입어 많은 학자들이 마쉬의 『인간과 자연』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1994년 창간된 유럽지역의 환경사 연구지 『환경과 역사』에 마쉬 특집호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쉬 특집호에 기고된 논문들에서조차 마쉬는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리처드 주드는 마쉬가 제시하고 있는 자연보존의 생태학적 근거는 마쉬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생태학적 근거에 기초해 자연을 보존해야한다는 논의는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자연신학과 자연사 속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던 담론이라는 것이다.⁴⁵⁾ 그레이 윈은 마쉬가 제시한 자연보존의 과학적 원리가 당시 뉴질랜드에 전혀 적용될 수 없었던 영터리 이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언 티렐은 마쉬의 자연보존론이 자연보존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의 동식물 이주, 재배 및 사육을 염두에 둔 제국주의적 의제를 담고 있음을 읽어낸다. 마르커스 홀에 의하면, 마쉬의 자연보존관은 미국인이 쓴 미국인을 위한 자연보존관이다. 마쉬는 다만 야생지(wild land)에 대한 환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미국에서 그 야생지의 파괴자로서의 인간을 목도한 미국인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⁴⁶⁾

역사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인간과 자연』에서 마쉬가 과학적으로 정확치 않은 주장을 했다거나, 그 주장들에 독창적이라 할 게 없다거나, 보전보다는 뭔가 다른 동기가 개제되어 있다는 점을 일종의 약점 또는 흠으로 지적해 왔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특히 자연을 보존하자는 마쉬의 목소리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자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쉬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⁴⁷⁾ 마쉬를 자연에 개입하여 이를 개발하려는 개량주의자,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여 간섭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시대 엘리트들의 선구자, 즉 기포드 핀쇼나 씨어도어 루즈벨트와 같이 공리주의를 표방하면서 중상류 계급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다.⁴⁸⁾ 하지만 마쉬를 후세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적 자연관리 운동의 시조로 보아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이상한 역사적 해석이다. 19세기 중반의 외교관 마쉬의 환경보존론에서 과학적 오류가 드러났다는 건

45) 주드가 말하는 마쉬 이전 미국의 자연사 연구를 Richard W. Judd, “A ‘Wonderful Order and Balance’: Natural History and the Beginnings of Forest Conservation in America, 1730-1830,” *Environmental History* 11-1 (January 2006): 8-36에서 볼 수 있다.

46) *Environment and History* 10-2 (May 2004), Marsh 특집호 “The Nature of G. P. Marsh: Tradition and Historical Judgement.”

47) David Ehrenfeld, *Beginning Again: People and Nature in the New Millenniu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77-179.

48) 이러한 시각은 20세기 초반 환경운동의 초점이 과연 보전이나 보존이냐를 둘러싼 존 뮌어와 기포드 핀쇼 사이의 논쟁 속에서 마쉬를 핀쇼의 선구자로 여기면서 시작된 서술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Roderick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 104-105를 보라.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가 지금은 잊혀진 다양한 당시의 자연연구 성과들을 인용하면서 책을 썼다는 것이 흠될 것도 없다. 주드가 불만스러웠다면 마쉬가 지나치게 유럽의 문헌에 의존하며 책을 썼다는 점이겠지만, 당시 미국의 학문적 위상과 마쉬의 근무환경과 학문적 배경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이해될 수 있다. 그간 여러 학자들이 마쉬의 「인간과 자연」을 심각하게 연구하지 않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환경론에 있어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쉬를 다시 평가해 보자는 의도로 마련된 저널의 특집호에 기고하는 역사학자들조차 마쉬를 가볍게 보는 선행연구들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리주의적, 개량주의적 입장을 매도하는 배경에는 독특하게 북미 지역의 국지적 역사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원생지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

5. 원생지 신화의 기원에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의 성찰

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생지라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일까? 아니 원생지란 대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북 유럽 지역에서 시작된 원생지(wilderness)라는 단어는 원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내려오면서 이 단어는 “사막지역” 또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가리키는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다.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던 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건조한 지역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된 이후, 이 단어는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나무가 없는 건조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현대인들은 아마 대체로 경작되지 않는 땅 또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연상하겠지만, 이 단어는 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공간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물리적, 도덕적으로 방향을 잃은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⁴⁹⁾

구약 성경에서 원생지는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저주의 땅으로 그려졌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며 샘과 내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지역을 뜻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악마적 존재가 깃들만한 장소이기도 했다. 물론 이 단어의 상징적 이미지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원생지란 또한 거꾸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었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신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원생지관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중세 내내 서양 문명의 중심부 인물들, 즉 기독교인들은

49) 물론 그 뿐은 아니겠다. 이 단어의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논하는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특히 Prologue를 보라. 원산지라는 Wilderness의 번역어는 고려대학교에서 환경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금영씨의 제안을 따랐다.

특히 북방의 원생림을 극복하고 없애야 할 적으로 보았다. 숲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장소였으며 그들이 불경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였다. 즉 유혹과 죄악이 깃든 장소였다. 하지만 조용한 숲이나 인적이 없는 사막은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피정의 장소이기도 했다.⁵⁰⁾

대륙을 정복해 나가며 거주지를 개척하던 미국인들이 원생지나 자연을 휴식이나 정화의 장소로 여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상상 밖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인디언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정복할 원생지 역시 사라져 가고 있음을 강렬히 느끼기 시작했다.⁵¹⁾ 물론 19세기 초반부터 자연을 아름답고 값진 존재로 그리고 감동을 받은 모험의 장소로 그리는 시각은 문학작품 등을 통해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⁵²⁾ 그렇게 자연의 숭엄함이나 영혼을 치유하는 때 묻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은 유럽의 도시인들 사이에서 18세기 후반 경 형성되기 시작했던 관념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자연에 대한 낭만적 감성을 통하여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독특한 경관으로서의 원생지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독특한 경관에 대한 자긍심을 통하여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신생국 미국의 정체성을 보았으며, 곳곳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야생동물 보호구역, 그리고 원생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시작했다.⁵³⁾ 이어서 대체 원생지란 얼마나 큰 지역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얼마나 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잇따랐다.⁵⁴⁾ 원생지를 자연의 핵심으로 보는 원생지 신화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연보호 운동의 역사는

50)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chs. 1-2. Carolyn Merchant, *Reinventing Eden: The Fate of Nature in Western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3); Majorie Hope Nicolson, *Mountain Gloom and Mountain Glory: The Development of the Aesthetics of the Infinit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1959).

51) 패트리샤 넬슨 리메릭, 『정복의 유산: 서부개척으로 본 미국의 역사』, 김봉중 옮김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1988), 특히 pp. 335-365.

52) 대표적인 작가는 쿠퍼 (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이다.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pp. 67-83, 또는 데이비드 아널드, 『인간과 환경의 문명사』, 서미석 옮김 (한길사, 2006/1996), pp. 202-221을 보라.

53) 리메릭, 『정복의 유산』; 아널드, 『인간과 환경의 문명사』;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54) 1920년대에 레오폴드(Aldo Leopold)는 등짐을 둘러메고 살펴보는 데 두 주일 이상은 걸리는 크기의 지역이라고 말했다. 마셜(Robert Marshall)은 기계적인 기구의 도움 없이 하루 내에 도달할 수는 없을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964년의 원생지 법안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대지 및 생물군집으로서, 그 곳에서 인간은 머물지 않는 방문객” 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The Wilderness Act of 1964,” in *The Great New Wilderness Debate*, ed. J. Baird Callicott and Michael P. Nelson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8), p. 121.

바로 이 원생지 보존운동의 역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자연히 자연보호 운동에 관한 역사 서술의 중심에는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뮌어(John Muir, 1838-1914), 그리고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들의 감성적 자연관에 비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공부하여 인간이 자연환경을 너무 심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마쉬는 인간 본위의 편협한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졌다.⁵⁵⁾

환경사학자 크로논은 1995년 미국인들이 지니게 된 원생지 신화의 기원을 파헤치고 이 신화에 기초한 자연관, 환경보호 운동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행위인지 의문을 던졌다.⁵⁶⁾ 환경보호를 논할 때 사람들의 뇌리에 거의 원형처럼 박혀 있는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생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상하는 원생지란 어떤 종류의 원생지인가? 흔히 보호해야 할 원생지로 사람들은 엄청난 산세를 자랑하는 산맥과 계곡, 거대한 폭포, 아름답게 자리 잡고 흐르는 강 등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엄청나게 거대하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경관을 소홀히 바라보는 심성을 진작할 수도 있다.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장엄한 경관에 대한 집착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유럽의 낭만주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 장엄한 경관에 대한 동경이 미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힘으로 작용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터너는 원생지로 둘러싸인 미국의 원시적인 환경이 그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했던 미국인들을 민주적인 집단으로 결속시키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고 보았다.⁵⁷⁾ 또 어떤 학자들은 원생지와 접경 프런티어 지역의 거칠고 힘든 삶이 많은 미국인들이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독특한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정신을 계발해 나가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고 정 반대로 해석하기도 했다.⁵⁸⁾

55) Lawrence Buell은 그의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에서 목가적인 전원으로서의 자연을 상상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상생을 장려한 필치로 그려내는 소로와 대비시키면서, 정복해야 할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오용의 결과가 인류를 절멸로 이끌 수 있다는 종말론적 비전 속에 자연의 관리를 구상하는 마쉬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다.

56) 원래 *Uncommon Ground: Toward Reinventing Nature* ed. William Cron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5), pp. 69-90에 실린 Cronon, "The Trouble with Wilderness; or, Getting Back to the Wrong Nature" 는 여러 책에 재수록 되며 환경사 및 환경윤리의 수정주의적 시각의 기폭제가 되었다.

57) Frederick Jackson Turner,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Henry Holt, 1920), pp. 37-38.

58) Richard Slotkin, *Gunfighter Nation: The Myth of the Frontier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Atheneum, 1992).

하지만 크로논은 원생지의 개념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원생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피하고자하는 바로 그 문명의 그림자”를 본다. 원생지란 “도시로부터 온 관광객이나 부유한 스포츠 광들이 여가를 위해 아메리카의 경관에 자신들의 프런티어 판타지를 투사하여 만들어 낸 이미지”라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경관이라는 원생지의 정의 자체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건너오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불의를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우림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자는 의미가 아닌가.⁵⁹⁾ 원생지의 개념 속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분법 또는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의 이분법적 대조가 지나치게 극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구도 속에서 인간의 환경을 논할 때 사람들은 인간들 중에는 관광객이나 도시인들 외에 농업인들이나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원생지 또는 자연을 느끼는 방식이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따라 크게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닐까? 원생지 또는 자연을 이상화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너무 가벼이 취급해 오지는 않았는가? 환경윤리 역시 어떻게 자연을 사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⁶⁰⁾ 사실 미국 땅이 원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생지였다는 이주민들의 시각은 애초부터 환상이었다. 이주민들이 원생지라고 생각했던 숲 역시 오랫동안 인디언들의 손길을 거치며 만들어진 인공물이었다.⁶¹⁾

리처드 화이트는 좀 더 직설적으로 환경론자들(Environmentalists)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겠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겠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들은 혹시 노동을 낙원에서 추방된 타락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쯤으로 보는 오랜 종교설화를 생각 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 또는 원생지란 당신들의 문화가 만들어 낸 형성물이며 다른 문화권에서 자연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여가와 놀이 속의 환경보다는 노동과 생계 속에서의 환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환경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자연의 작동과 인간의 노동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받아들이고 순수한 자연 상태를 향한 집착을 이제 벗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⁶²⁾ 자연의 역사를 배제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듯이,

59) “The Trouble with Wilderness,” pp. 78-79, p. 82.

60) “The Trouble with Wilderness,” p. 85.

61) William Cronon, *Changes in the Land: Indians, Colonists, and the Ecology of New England* (New York: Hill and Wang, 1983).

62) Richard White, “‘Are You an Environmentalist or Do You Work for a Living?’ : Work and Nature,” in *Uncommon Ground*, pp. 171-185.

적어도 지나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역사를 피해서 자연의 역사를 그려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식하자.⁶³⁾

역사학자들은 이제 원생지에 집착하는 환경관이 미국인들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더구나 이들 중에서도 특정집단의 문화적 감성과 권리 그리고 이익을 대변하는 시각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환경사 연구들이 집적되면서 점차 더 설득력 있는 관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⁶⁵⁾ 연구자들의 시선은 이제 원생지 또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에 대한 집착보다는 인간의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관심, 개인위생이나 삶의 질에 관한 논의, 그리고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자연 접근성을 보살피려는 환경 정의론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⁶⁶⁾ 마쉬의 『인간과 자연』에 관한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은 이러한 환경사학자들의 자각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귀환은 크로논과 같은 역사학자들은 물론 지리학자들이⁶⁷⁾ 연구주제로 삼았던 주체가 분명치 않아 파편화 되어 보이지만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환경사라는 학문 분야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인간과 자연』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 상황은 또한 인간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관심사가 다양해져 감을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의 귀환은 무엇보다도 환경사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갖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새로운 논의들을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가게 되리라는 전조이기도 하다.⁶⁸⁾

63) Richard White, *The Organic Machine* (New York: Hill and Wang, 2000/1995), in pp. [ix]-x. 이 책의 내용은 2001년 환경사 독회 그룹을 조직했던 이두갑 군의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

64) 이러한 깨달음은 역시 주변부 역사학자 제 3세계의 역사학자 또는 외부 역사학자의 강렬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의 환경사학자 구하는 미국의 환경사학자들이 인간을 잊혀놓고 원생지 또는 자연환경의 역사에 몰입하는 풍경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놀랐다고 말한다. Ramachandra Guha, “Radical American Environmentalism and Wilderness Preservation: A Third World Critique,” in *The Great Wilderness Debate*, pp. 231-245.

65) 미국 외 지역 환경사에 대한 유용한 리뷰로 Paul Sutter, “Reflections: What Can U.S. Environmental Historians Learn from Non-U.S. Environmental Historiography?” *Environmental History* 8-1 (January 2003): 109-129가 있다.

66) 예를 들어, 테마 공원 또는 과학 연구단지의 설계 속에 과학 엘리트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의 이상적인 자연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Rosmary Wakeman의 “Dreaming the New Atlantis: Science and the Planning of Technopolis,” *Science and the City*, eds. Sven Dierig, Jens Lachmund, and J. Andrew Mendelson, *Osiris* 18 (2003): 255-270을 보라.

67) 홍금수, “環境史 研究 序說”; Alan R. H. Baker, *Geography and History: Bridging the Div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8) Douglas R. Weiner, “A Death-Defying Attempt to Articulate a Coherent Definition of Environmental History,” *Environmental History* 10-3 (July

